

지역 소식통

정읍시, 내장산 단풍절정기 안전관광 여건 제공 총력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내장산의 단풍절정기를 맞아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8일과 7일에는 4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몰렸으며 단풍절정기인 12일까지 탐방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내장산접단시설 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5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풍철 행정질서 확립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7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불법 노점상행위, 각설이 고질병마 등 고질적인 문제 속에 실추된 내장산 이미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새마을회,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진행

정읍시새마을회(회장 김학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정읍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2021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와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대상자의 부실한 식생활을 보충하고, 타인과의 대화가 거의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정서지원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유진섭 시장과 부인인 오명숙 여사를 비롯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 회원, 지역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굶은 날씨에도 배추 절이기부터 채소 다듬기, 각종 양념 재료 등을 준비해 3,5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집중

유기상 고창군수, 국회찾아 예결위원 면담 등 국비 확보 건의

유기상 전북 고창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9일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회를 찾아 예결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고창군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유 군수는 이종배 예산결산위원장,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신영대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운천 의원 등 예결위원 등에게 중점 추진사업의 예산반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협

조를 당부했다.

특히 ▲노을, 생태 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K-발사믹시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중점 확보 사업 반영을 중점 건의했다.

또,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에게 ▲흥덕·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환노위 소관 사업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수홍·안규백 의원을 찾아 고창군 현안과 국가예산사업에 전방

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다음달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 예산안 국회의심의 일정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고창읍 덕정리에 편백나무 숲 테마산책로가 완성됐다.

편백숲 테마산책로 '완성'

고창군, 덕정리 일원... 진입로 3개소 확보

고창군이 고창읍 덕정리에 편백나무 숲 테마산책로가 완성됐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읍 서부권 주민들을 위해 편백숲 3ha를 활용한 산책로(고창읍 덕정리 224번지 일원)를 최근 준공했다.

산책로는 인근 사회복지타운 이용객, 마을주민과 군민들이 쉽게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 3개소를 확보했다.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편백숲 순환산책로(1km)는 현장 여건에 맞춰 데크로드, 보행매트, 황토폰크리트, 들계단이 설치됐다.

편백숲 중앙부 황토폰크리트 포장은 5m 폭을 확보해 차량진입도 가능해 보행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전면부 광장에서 편백숲으로 들어가는 주 진입로의 들계단은 2.4m 폭으

로 설치해 양방향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곳곳에 휴식할 수 있는 정자와 돌벤치, 보안등과 가로등을 설치해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로 환경을 만들었다.

특히 편백숲 전면부 광장에는 높이 50cm 경관용벽이 설치돼 앉아서 쉴 수 있고, 아름드리 느티나무 그늘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블록포장 등 주민들의 소통과 쉼이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조성했다.

고창군 김성근 산림공원과장은 "새롭게 조성된 편백숲 테마 산책로를 위로는 휴식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백숲의 치유 효과를 이용한 공간 조성을 통해 우수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천연기념물 지정 단풍나무 보존·보호 '앞장'

지정 기념행사... 문화재로서의 가치 홍보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금선계곡 단풍나무의 천연기념물(제563호)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9일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열렸다.

시는 국가 지정 자연유산이 된 단풍나무의 가치를 홍보하고, 잘 보호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열고 많은 시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주재우 국립공원관리소장, 문화재청과 내장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설과 함께 듣는 단풍나무 이야

기'를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는 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자연유산보존협회 고규홍 이사의 자연유산 강의와 경과보고, 지정서 교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내장산 단풍나무의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290년으로 추정되고, 수고(높이)는 16.87m, 근원직경(말동뿔대)은 1.13m, 흉고직경(가슴높이 뿔대)은 0.94m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 조선 8경의 하나라고 기록된 내장산의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 수종으로 단풍나무 단목으로는 전국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경사가 급한 특이환경에서 퇴적층과 하부기반암의 균열부에서 생육

함에도 생육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웅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자연경관과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인 내장산을 대표하는 상징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단풍나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장산 단풍은 '내장산에서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이 내장산에서 가장 많은 수종을 붉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9일 오후 14시부터 영성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진행하였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에 설립되어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원전안전을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책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

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회생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원전 인근 314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마을희망지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부안군은 제2기 마을희망지기들과 함께 지난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한파, 계절형 실업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저소득층과 건강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을 추진한다.



제2기 마을희망지기는 지역실정에 밝고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전 공무원, 종교단체, 아파트 관리소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등 955명을 지난 3월 위촉했으며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위기가구 1100세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마을희망지기는 겨울철 집중 발굴 기간 동안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선제적으로 현장중심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기준을 벗어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해 소외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